다함께 더좋은유성

2024. 1.
www.yuseongnews.co.kr
Vol. 216

유성소식

더좋은유성



중심성성(衆心成城)

2024 청룡의 해
유성구 실천의지입니다

유성구
YUSEONG DISTRICT

유성소식
더좋은유성
2024. 1.
www.yuseongnews.co.kr
Vol. 216







새해 인터뷰
정용래구청장 | 04

특집 I | 민선8기 핵심과제 어디까지 진행됐나?
미래선도도시 | 07
친환경 스마트도시 | 08
주민자치도시 | 09
문화복지도시 | 10
안심건강도시 | 11

구정초점
크리스마스축제, 청소년어르신 한식대첩 | 12
학교로 찾아가는 캠프, 환경친화적 유성만들기 | 13





의회소식
2023년도 마지막 정례회 | 14

정책소식
2024년 달라지는 것들 | 16
소비자 물가 비교사이트 '참가격' | 17

독자투고
퇴직 후 허브가든 | 18

사람들
정길순 노은2동 새마을부녀회장 | 19

탐방
이동노동자 쉼터를 아시나요? | 20

구정종합 | 22

지역소식 | 24

문화·생활소식 | 26

구청장이 답하다 | 28

알림 | 30



표지 설명 : 새해 유성구는 '마음을 합치면 견고한 성을 이룬다'는 중심성성(衆心成城)을 실천의지로 정하고 구정에 매진하기로했다. 사진은 새해 일출 모습. 사진:이성희기자(중도일보)

「더 좋은 유성」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팩스, 이메일을 이용해서 보내주세요
전화 042.611.2743
팩스 042.611.2091
E-mail newworld07@korea.kr
Homepage www.yuseongnews.co.kr

통권	제216호 2024년 1월 1일 발행
발행처	유성구
발행인	유성구청장
전화	042.611.2743
팩스	042.611.2091
홈페이지	www.yuseongnews.co.kr
기획/편집	유성구 홍보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편집인	홍보실장
편집위원	임재만, 이훈희, 우상훈
사진	장경섭
디자인	동아인쇄기획
인쇄	아회디자인



“4대 혁신 통해 유성 비상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Q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힘찬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구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A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지난해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속에 지역 발전에 한 발 더 다가가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모두가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새해에도 구청장과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유성을 전국 제1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Q 지난해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분야에 어떤 성과들인가요?

A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유성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성과를 나타낸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지만, 전민동 지역에 도서관 기능까지 갖춘 전민복합문화센터를 개관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했다는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진잠동 복합커뮤니센터를 개청했고요. 학하동·신성동 청사도 착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삶이 질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을 스마트 경로당으로 만든 것이 성과입니다. 이제 스마트 경로당이 65곳에서 120개소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말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던 보훈회관을 지난해 말 착공해서 공사 중입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구에서는 위생업소 난방비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유성온천 사계절 축제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Q 지난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많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A 외부 평가는 자치단체로서 1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성적표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권위가 있는 기관의 평가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자치단체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파하고 더욱 분발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경쟁력 지수 1위, 서비스품질지수 1위, 생산성 대상, 그리고 매니페스토, 건강보건관리, 지역사회돌봄, 청년친화, 지방물가, 산림분야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전국 종합 1위 자부심, 창업, 마을공동체, 돌봄, 문화 혁신 강력 추진 할 것’

Q 평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그중에서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전국 자치구 종합 1위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평가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만여 개의 기초자료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조사·분석한 지수입니다. 지난 1996년부터 28년째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경영지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을 종합평가해 시·군·구 경쟁력을 한눈에 가늠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권위가 있는 평가입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유성구가 그만큼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대내외에 입증한 것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Q 구민들께서는 구청장님이 올 한해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A 새해에는 4대 분야 혁신을 통해 민선 8기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창업 혁신입니다. 청년이 모이고 창업이 활성화되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유성은 대덕특구를 포함하고 있고, 특히 어은동과 궁동은 카이스트와 충남대 사이에 위치해있어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에 용이합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창업 혁신의 선도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혁신입니다.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0곳의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고, 새해에는 추가로 7곳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Q 지난해 지역 사회 통합돌봄 분야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새해 중점 과제에 포함되나요?

A 물론입니다. 4대 혁신에 포함되어 더 알차게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온 마을이 나서 다 함께 아이를 키우는 온마을 아이 돌봄 생태계구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학교 등 지역의 공간을 활용한 돌봄센터, 주민공동체가 참여하는 마을 틈새 돌봄,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방과 후 돌봄 사업 등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책임 돌봄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혁신도 추진해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테마가 있는 사계절 축제를 시작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오감을 만족하는 내실 있는 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쏟고 행정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특히 온천 관련해서 유성온천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공간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준공하고 주민밀착형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힘쓰겠습니다.

Q 어느 해보다도 과제가 많아 바쁜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직원과 구민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A 새해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많은 과제가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1천여 직원도 구청장과 하나가 되어 더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다 함께 마음을 합치면 견고한 성을 이룬다는 의미의 ‘중심성성(衆心成城)’을 실천의지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임재만

민선8기 핵심과제 어디까지 진행됐나?

미래도시, 스마트도시 등 5대분야 진척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선도도시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 기존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를 개편해 미래교육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여 전문화·체계화된 진로진학 교육의 허브 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올까지 사업방향을 검토하고 2025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성과학축제 개최 = 청소년과 성인, 가족 단위 등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성과학축제를 개최하여 과학 도시 유성의 위상을 제고하고, 과학문화 공연 및 전시 등 차별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계속사업으로 올해 5회째이다.

'Zero 100' 청년 프로젝트 = 제로백 청년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구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스타트업파크·기업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6년까지 청년주택 보급을 목표로 하고있다.

유성스타 브리지 설치 = 현재 궁동(대학로, 스타트업파크 등)과 봉명동(카페거리, 유성온천공원 등) 사이 보행에 불편을 겪는 구민들의 의견이 많다. 구는 2025년까지 궁동과 봉명동을 잇는 남북 보행 교통축을 형성해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유성 독서대전 개최 = 구는 '걸어서 10분 거리 작은도서관'을 추진할 정도로 독서 자원이 풍부하다. 구는 올해에도 유성형 독서대전을 개최하여 지역의 독서문화를 확산, 정착시키고 '책 읽는 도시 유성'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대전환의 시대

친환경 스마트 도시

디지털전환(DX)지원센터 설립 = 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구민 모두가 주체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 및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미 청년점과 진잠점이 문을 열었고, 2026년을 목표로 시설 접근성과 지역·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총괄 거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실증화 단지 구축 = 지역의 도농 상생발전을 위해 2025년까지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춘 실증 단지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창년창업농 임대 및 스마트팜 규제개혁을 위한 행정 지원을 추진한다.

유성형 농민수당 도입 =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구는 '유성형 농민수당' 도입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보전과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 확충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다. 구는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47개소에 충전시설 133기를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친환경 목재친화도시 조성 = 도시재생사업에 탄소중립 소재를 활용, 친환경 도시재생모델을 구축한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봉명동 일원에 목재로 특화된 거리를 조성, 친환경 미래도시의 모습을 제시한다.

소방안전도시 구축 = 구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방 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 세부적으로는 3D 디지털 데이처 구축,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및 센서데이터 연계, 실감형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민이 주인공인 최고의 주민자치도시

마을커뮤니티 공간 확충 =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마을 활동과 주민소통의 거점인 커뮤니티 공간을 발굴하고 조성한다. 2026년까지 관내 20개소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공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복합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설 예정인 동 청사를 다기능 복합문화공간으로 설계했다.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3년 개청했으며, 2026년까지 학하동, 신성동, 상대동 신청사가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방과 후 돌봄 인프라 확대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유성으로 발돋움한다. 구는 틈새없는 방과후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여 촘촘한 마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말까지 9곳을 개소했고, 2026년까지 다양한 형태의 돌봄 공간을 2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 구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의료, 방문 건강을 구축하여,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 사회와 더불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 2026년까지 지속사업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 구는 보육수요와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 반려 동물과 함께 하는 가구가 늘고 있고, 이제 반려동물은 한 식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구는,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 공간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추진, 동물복지 향상 및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완료 예상 시기는 2026년이다.

정리 / 우상훈



삶이 풍요로운

문화복지 도시

사계절 축제 도시 = 유성의 대표적인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를 사계절 주제별로 개최하고 있다. 봄에는 유성온천문화축제, 여름에는 지역 특화상품인 유성 맥주를 기반으로 한 재즈 & 맥주 페스타, 가을에는 음악회와 국화전시를 연계한 국화전시회,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축제와 샹젤리제 거리 경관 조명 설치를 통해 사계절 볼거리 즐길 거리를 선물하고 있다.

복합문화예술센터 조성 =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복합문화예술센터가 조성된다. 복합문화예술센터는 학하중앙로 68외 9필지, 유성유스호스텔 부지를 활용해 조성된다. 2027년 개관할 예정이며, 전시실과 다목적실, 예술인 문예 창작공간 등이 마련된다.

유성온천 관광 활성화 = 유성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 유성온천 지구에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구축하고, 온천문화체험관 '溫 유성 休 센터'가 2025년까지 조성된다. 이 밖에도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공연장, 여행안내소를 마련하고, 온천수 콘텐츠 공간, 지하 주차장을 조성한다.



사회복지관 건립(진잠·노은3동) =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관이 진잠동과 노은 3동에 건립된다. 진잠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진잠주민배움터 외 2필지에, 노은3동 사회복지관은 지족동 1048-1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방동 수변공간 여가 기반 조성 = 방동저수지 일원을 생태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 네어쳐 존, 레포츠존, 어메니티 존 등 테마공원과 주변 특성을 살린 수변 산책로 조성, 연꽃 정원을 마련하고 방동저수지 내 음악분수를 마련해 올 상반기에 개장한다.



주민 건강챙기는

안심건강 도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공모사업으로 5개 구중 유일하게 유성구가 선정됐다. 디바이스 및 전문인력을 투입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한다. 정신·중독질환자 집중관리 및 대상자별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정신 및 중독질환자를 중점 관리한다.

다함께 만들어 가는 치매안심마을 =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됐다.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선별검사 참여를 확대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 공동주택 내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비용을 지원한다.

위생수준 up, 구민 안심 up =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 등급 지정 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위생 등급 지정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지원 및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음식점 위생 등급제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리 / 이훈희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흠뻑 빠지다

'2023 유성온천 크리스마스 축제'

12월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조명 불빛이 온천로 거리를 물들였다. 12월 1일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2023 유성온천 크리스마스 축제'가 온천로 일원에서 시작됐다. 점등식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이 찾아 설렘과 기쁨을 나눴다.

유성온천공원 두드림 공연장 인근에서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다양한 장식품을 판매하는 마켓이 열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화려한 불빛 사이에서는 대형 회전목마가 운영돼 아이들과 함께 찾은 가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이번 축제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렸으며, 충남대 정문 앞에서 유성온천역까지 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한 샹젤리제 거리는 2월 12일까지 설치 운영된다.



청소년과 조부모가 함께 만든 맛난 요리

세대공감 '드림쿠킹'요리 경연 대회

지난해 11월 25일 유성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어르신 세대공감 '드림쿠킹'요리 경연 대회가 열렸다. 세대공감 연간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조부모의 조리 비법을 청소년과 조부모가 함께 요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치를 주제로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김치 요리가 완성됐다. 정용래 구청장은 "경연의 승패를 떠나 어르신과 청소년이 한 팀을 이루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을 나누다

'학교로 찾아가는 힐링 캠프'

대전장대중학교에서 열린 '학교로 찾아가는 힐링캠프'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등학교로 진학 전 추억을 함께하고 감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여.운(여기서 보낸 운명 같은 3년)이라는 부제처럼 학생들의 중학교 3년을 추억하며 다양한 공연(밴드 & 댄스)과 이벤트 ▲미니 체육대회 ▲블라인드 콘서트 ▲찾아가는 영상 편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환경친화적인 도시 유성 만들기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운영

유성구는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을 앞장서는 우수아파트를 선정하고 인증을 해주는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150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세대 가입률 ▲전기 사용감축률 ▲수도 사용감축률 등 6개 항목에 대해 심사하고, 17개 아파트를 선정했다.

선정된 아파트에는 인증 현판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공용시설, 탄소중립 실천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유성국화전시회 기간 중 텀블러를 지참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면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는 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다.

유성구는 '다함께 행복한 유성, 탄소중립과 함께!'라는 비전으로 주민주도 탄소중립 활성화, 탄소중립 인재 양성 및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글 / 이훈희

2023년도 마지막 정례회 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2023년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미희 의원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유성구의회가 승인한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6.8퍼센트 증가한 7,686억 3,941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55건의 사업에 대해 35억 8,599만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30건에 대해 1억 7,534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다”라고 말했다.

송봉식 의장은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기원하며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한다”라고 말하며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쳤다.

지역사회발전 유공자 표창패 수여식 개최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2023년 지역사회발전 유공구민 표창패 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표창패 수여식은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뛰어난 공헌을 한 유공구민 14명을 선정해 격려하고 구민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송봉식 의장은 “수상자 여러분들 모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계속 펼쳐주시기 바라며 유성구의회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 좋은 유성구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도시위원회,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현장방문 실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했다. 현장방문에 나선 의원들은 금고동 위생매립장, 폐목재 파쇄시설, 음식물 광역자원화 시설, 바이오 가스화시설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폐기물의 처리와 매립지 관리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재만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사업추진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성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조례연구회

최종보고회를 통해 총 414개의 유성구 조례 중 의회·기획실·주민복지 관련 조례 157개를 집중 분석·검토 하였다고 밝히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또는 위반사항, 장기간 미정비 및 미적용,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비안 등을 제시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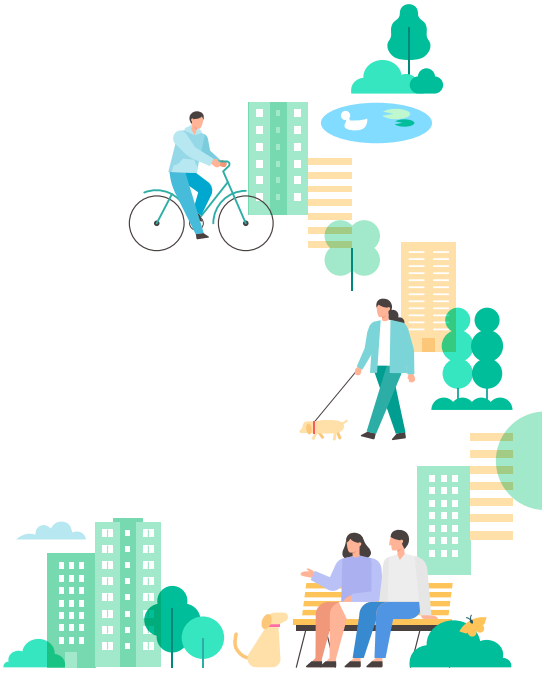
최종보고회에서는 정부가 감액한 R&D 예산 5조 2,000억원(16.6%)은 전국적으로 10조 4,07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조 997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39,092명의 취업유발효과 감소를 유발하고 그 중 대전에서만 생산유발효과 6조 4,08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5,878억원, 취업유발효과 33,533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보고했다.



청소년 마음건강을 위한 문화연구회

최종보고회를 통해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관련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비롯해 지역기업 및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 인프라 조성, 방과 후 학교 인근 청소년 전용 시설 설치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24년 달라지는 것들

최저 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다.

생계급여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구	2023년	2024년(안)
1인	623,300	713,100
2인	1,036,800	1,178,400
3인	1,330,400	1,508,600
4인	1,620,200	1,833,500
5인	1,899,200	2,142,600
6인	2,168,300	2,437,800

노인 소득·돌봄 확대

노인 기초연금이 2023년 월 32만 3천 원에서 2024년 월 33만 4천 원으로 인상된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도 기존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확대된다.

0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 급여 월 100만 원 지급

부모 급여가 0세는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된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 'K-PASS'

대중교통 이용료를 약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할인받을 수 있다. 도입 시기는 7월부터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연 최대 3회 응시료 50% 감면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연 3회 50% 감면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2024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 우상훈



우리 동네에서 저렴한 매장을 한눈에

소비자 물가 비교사이트 '참가격'

계속 오르는 물가, 저렴하게 사려면

식당을 가다가, 장을 보다가, 갑자기 부쩍 오른 가격에 놀랄 때가 있다.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메뉴로 식재료, 생필품을 파는 매장을 찾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참가격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포털사이트다. 누리집을 방문하면 내가 사는 지역 매장의 품목별 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다.

가격 비교하고, 평균 가격도 알 수 있어

전국 단위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등 상품 가격을 2주마자 조사해 알려준다. 예를 들어 A마트에서 10구짜리 계란을 9,000원에 파는 경우도 있고, 같은 상품을 B라는 마트에서 7,000원에 팔 수도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판매점에 따른 가격을 비교해보거나 전국 전체 판매점의 평균 가격도 알 수 있다.

식재료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격 정보까지

참가격에서는 식재료뿐만 아니라 서비스가격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전국 지하철과 버스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을 비롯한 공공요금과 외식비, 학원, 교습비, 비급여진료비를 조회,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중 학원비를 검색하면 우리 지역 교육청 사이트로 곧장 연결된다. 입시학원만 해도 수십 곳에 이르는데 모든 학원의 교습시간과 교습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연도별, 월별로 가격 동향을 그래프 등으로 제시해주기도 한다. 가계 생활을 계획할 때 중요한 물가는 참가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 https://www.price.go.kr

글 / 우상훈

퇴직 후 '허브 가든'

대다수 퇴직자처럼 나에게도 퇴직후 생활은 고민이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해보고 싶었던 일 하기,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 이웃들과 나누며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등이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 허브 재배이다. 책상 위에 허브 관련 책들이 수북이 쌓여 갔다. 머리와 가슴에 탁탁 와 닫는 재배 방법, 갈무리, 활용법은 두꺼운 노트에 파트별로 기록해 놓았다. 지역 농업기술센터 귀농 교육을 개근으로 이수했다. 농사일하려면 나무 다루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 목공 기술을 배우고 조경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3년 전부터 나의 허브 가든 일이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땅에서 돌을 캐내고 퇴비를 넣어 골랐다. 농사일에 필요한 농기구를 넣어 두고 쉬기도 하는 조그만 유리온실도 만들었다. 유리온실에 들어갈 화분대, 야외용 탁자와 의자, 작업대와 수납장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은 하루 이틀 걸리는 단기간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는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일들이었다.

나의 허브 가든에는 10여 가지의 허브들이 자라고 있다. 페퍼민트와 스피아민트 형제, 캐모마일, 야로우, 바질, 로즈메리, 라벤더, 레몬 타임, 아스파라거스, 와송, 곰보배추 등이다. 처음부터 다짐한 대로 농약과 비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다행인 것은 일부 허브를 제외하고는 병충해에 강하다. 설령 벌레가 생겼더라도 손으로 잡으면 그만이다. 정성스럽게 기른 허브는 주로 잎과 꽃을 수확한다. 말리고 덖어 차를 만들어 마신다.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거나 식용 허브 오일, 팅크처 등을 만들기도 한다.

허브는 약이나 향신료로 쓰이는 식물이다. 감기 등 호흡기, 소화기, 진정 작용, 심혈관계, 면역, 해열, 피부미용 등 모든 질병의 예방과 완화, 치료에 널리 이용하고 있다. 나의 허브 가든에 있는 페퍼민트는 소화 기능이 뛰어나고 통증, 살균 등의 의약품으로 쓰인다. 스피아민트는 구강위생에 좋다. 이브닝 차로 널리 애용되는 캐모마일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야로우는 상처 치유와 갱년기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곰보배추는 기침과 가래에 특효가 있다고 많이 알려진 허브이다. 이렇듯 허브는 각각의 다양한 향과 효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된다.

내 사랑스러운 허브들은 주로 차로 만들어진다. 꽃은 건조 차로, 잎은 건조 차와 덖음 차로 탄생한다. 때로는 생잎과 생 꽃을 그대로 차로 마시기를 좋아하는 분도 계신다. 내 주된 고객은 가족과 친지, 친구, 이웃들이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다. 뙤약볕 아래 탈진하면서 허브를 재배하고 뜨거운 불 앞에서 차를 덖으면서 힘 빠지고 갈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은 새 힘을 얻는 좋은 평가와 칭찬을 종종 듣는다. 과분한 관심도 받게 되었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몇 년간은 불안과 갈등에 시달린다. 반면 도전과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지혜와 저력을 발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나에게도 이러한 불안과 도전의 시간이 있었고 새로운 길의 이정표가 보였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정표에 허브 가든의 방향표시가 있었다. 허브 가든이 나의 목적지임을 재확인하고 지금까지 직진하여 느긋하고 보람 있게 걷고 있다. 퇴직하던 날,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스스로에게 위로했던 말을 되뇌어 본다. '고생했어, 잘했어'

글 / 전병익



사람들 / 정길순 노은2동 새마을부녀회장

“봉사 생각하면 제 마음도 좋아집니다”

24년째 새마을 봉사하는 정길순 노은2동 부녀회장

“날씨가 추워요”, “커피 한잔하시고 하세요”, “절임 배추 옮겨주시고요”

지난해 11월 마지막 날. 이른 아침부터 정길순 노은2동 새마을부녀회장 목소리가 커진다. 여전히 불편해 보이는 몸을 바쁘게 움직이며 봉사자들과 김장을 위해 절임 배추와 양념을 챙긴다.

정 회장의 봉사는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는 노은동이 분동되기 전이었어요. 입주한 아파트부녀회 활동을 하던 중 새마을부녀회에 가입하게 됐죠. 그런데 특별히 봉사라고 생각 안하고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참여하게 됐는데 그것이 24년이 흘렀네요”

- 연말에 하는 김장 봉사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봉사죠. 바쁜 일상에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데, 늘 참여해 주시는 회원들께 고마운 마음입니다”

정 회장과 대화 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온다.

“아, 네. 이따 오후에 김장 김치가 도착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오랜 세월 김장을 나누다 보니 김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듯했다.

“오늘 담은 김장 김치는 160포기예요. 홀로 사시는 분, 수급자, 장애인 가족들에게 드리죠.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예수은혜교회 김영주 목사님이 10킬로짜리 쌀 20포를 후원해 주셔서 어느 해보다도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정 회장은 모든 이야기를 시원시원하고 덤덤하게 한다. 오랫동안 해온 봉사가 몸에 베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정 회장이 줄곧 어려움 없이 봉사해 온 것은 아니다. 2015년 그는 뇌졸증을 겪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정 회장은 후유증으로 매우 불편한 몸을 이끌고 봉사를 다시 시작했다. 쓰러지고나서 그동안 맡아온 회장직을 그만두고 평회원으로 남아 재활치료를 하던 중 부녀회 존치가 어려워지자 지회에서 다시 부탁해 온 것이다. 보통 몸이 불편하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한다. 그렇지만 정 회장은 달랐다. 보기 안쓰러울 정도의 모습인데도 행사장에 나왔다.

“봉사를 쉬지 않고 해온 덕분에 건강이 더 빨리 회복된 것 같아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 회장은 김장 봉사 이외에 그동안 활동은 숫자로 세기가 어려울 정도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주는 사랑의 밑반찬 봉사,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돕는 며느리봉사대 활동, 쓰레기 분리수거·그린코리아·탄소중립 등과 같은 각종 캠페인 활동 등 말 그대로 봉사하는 생활이었다.

정 회장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새해에도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평범한 새해 소망을 말했다.

인터뷰/임재만



이동노동자 쉼터를 아시나요?

봉명동 레자미멀티홈 상가 2층에 위치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N잡러'들의 등장으로 이동노동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원, 택배, 셔틀버스,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해 학습지 교사나 방문 판매원 등 근무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역 내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며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실내보다는 외부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 특히 뜨거운 한여름이나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는 업무 도중에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가 절실하다.

대전 이동노동자 1만 3천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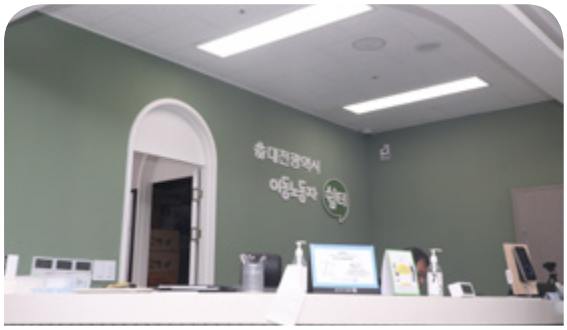
지난해 대전시 통계에 따르면 대전시 관내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는 1만 3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대전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은 휴식을 취할만한 장소가 없어 주차장이나 야외 벤치 등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유성구는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쉼터의 수요가 특히나 많은 곳이다. 이에 대전시는 2021년 대덕구 송촌동에 이어 2022년 12월부터 유성구 봉명동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평일 운영, 주말과 공휴일 휴무

유성구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는 유성구 봉명동 레자미멀티홈 상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들의 활동이 많은 시간인 평일 오후 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 공휴일은 휴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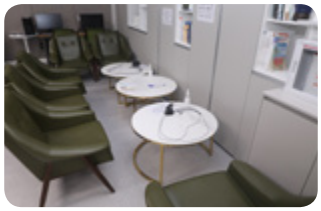


다양한 시설, 물품 구비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안내데스크, 공동휴게실, 회의실, 교육실, 카페테리아, 여성휴게실, 탕비실 등 시설을 갖추었다. 안마의자와 발 마사지기, 의자와 테이블, 핫팩, 생수, 컴퓨터와 복합기, 휴대폰 충전기, 혈압검사기, 인바디 검사기기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특히 이동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휴대폰 충전기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다.









회의실과 교육실 대관 가능

쉼터에서는 회의실과 교육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획강좌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법률 상담 또는 건강관리와 관련한 강좌를 들을 수 있으며, 직무역량 강화, 권리 교육 등 맞춤형 교육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데스크에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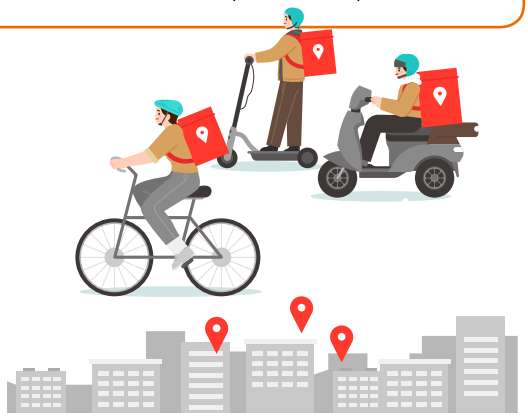
글 / 우상훈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북로7, 레자미멀티홈 상가 2층 202호

문의 : 042-825-1955

운영시간 : 평일 오후 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공휴일 제외)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완료

구는 지난 19일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3회에 걸쳐 완료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중일고, 노은고, 지족고)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유성구지회 전임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부동산 계약 기초용어 ▲전세사기 피해 발생 원인 ▲피해 사례 및 예방법 등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경험과 지식 강의로 진행했으며, 총 32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유성구 청소년, 다양한 분야에서 표창 수상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지난 1일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한 202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정책제안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후인 6일,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권준영 운영위원장이 제19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청소년 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7일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한 청소년어울림마당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어울림마당 기획단이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2023 디지털 드림페스티벌 개최

구는 지난 9일 유성구청소년수련관에서 디지털 드림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드림페스티벌은 과기정통부의 2023년 청소년 디지털 미래설계교육 공모에 유성구가 전국 유일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운영한 디지털드림센터의 교육 성과를 나누는 축제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시설 관계자와 청소년,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구는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봉명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완료 및 개방

구는 봉명동 554-12번지 일원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4일부터 무료 개방했다. 주차장은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와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1,401.3m² 부지에 43면 규모로 조성됐다. 구는 이후에도 관내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주차장은 2024년 2월부터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4회 유성 과학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구는 지난 2일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유성과학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대덕특구 5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 내 과학기술의 성취를 소개하고,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과학의 즐거움을 전했다. 서프라이즈 과학대탐험 공연, 과학체험부스 등 다양한 과학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맞춤형 행사로 준비되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유성구, (사)대전ICT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구는 12일 (사)대전ICT산업협회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전문적 지원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성구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컨설팅을 통한 기업 성장 및 지역사회 발전과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관내 기업 요청에 대한 (사)대전ICT산업협회에서 법률·세무·회계·지식재산·상담 등 전문 컨설팅 지원과 중소(벤처)기업 네크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등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상호 협력이다. 구는 관내 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9호점 개소

구는 21일 둔곡동 우미린사이언스포레 아파트에서 초등방과 후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9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공공돌봄서비스다. 구는 이번 유성아이 9호점을 개소로 2023년 기준 총 10개의 공공돌봄시설을 조성했으며, 2026년까지 총 15개소의 공공돌봄시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리 / 우상훈

후원금 200만원 기탁

구즉동 이정렬 통장

구즉동 이정열 통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식에 참여한 이정열 통장은 2022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400만원의 후원금과 외식상품권을 지정기탁했으며, 지난 11월에는 구즉동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주민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웃사랑 성금 1천만 원 기탁

하나은행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부행장 이성진)은 지난해 12월 4일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받은 성금은 이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희망 2024 나눔캠페인'에 전달하여 2024년도 유성구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100만원 상당의 '사랑의 김' 기탁

온천2동 새마을부녀회

온천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유미숙)는 지난해 11월 29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사랑의 김'(50박스/1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번 '사랑의 김' 기탁은 연말을 앞두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됐다. 온천2동 새마을부녀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밑반찬 봉사와 경로당 위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

신성동 성덕중학교

신성동에 있는 성덕중학교는 지난 11월 29일 김장김치(20박스/100L)를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기탁했다. 이날 행사는 성덕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키운 배추로 교직원과 학생,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30여명이 함께 모여 김장을 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기부한 김장김치는 관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구에 전달했다.



'사랑의 나눔 봉사' 활동

유성구 환경노동조합

유성구 환경노동조합(위원장 김연우) '사랑나눔봉사단'은 은 지난해 12월 2일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랑의 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환경관리 요원들이 성금을 모아 후원 물품을 마련했으며, 정용래 유성구청장, 유성구 환경관리 요원과 가족, 청소행정과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연탄 500장과 쌀(20kg) 2포대, 라면, 화장지 등 생필품을 함께 전달했다.

매월 20만원 상당의 반찬 후원

지역 기업 다미온

식품제조업체 다미온(대표 황인우)은 지난 12월 6일 매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20만원 상당)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 정기기탁은 학하동 분동 이후 기업이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첫 사례로 후원 물품은 학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매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장 김치, 구급상자, 쿠키 전달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상대동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 22박스, 구급상자 30개, 쿠키 30박스를 전달했다. 학생들은 무농약으로 직접 재배한 배추와 국산 양념으로 김치를 담갔으며, 보건 간호 과정 학생들이 구급상자를, 제과제빵 과정 학생들이 쿠키를 만들어 활동에 참여했다.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 가져

온천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온천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오영환)·부녀회(회장 유미숙)는 지난해 12월 21일 온천2동 청사에서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준비된 떡국떡은 관내 어려운 이웃 70가구에게 전달됐다.



'충청권역 반도체공동연구소' 개소

충남대

충남대가 IV권역(충남, 충북, 대전) 반도체공동연구소를 개소하고, 지속가능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충남대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2시, 충남대 융합교육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이진숙 총장,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 조승래 국회의원, 박흥수 나노종합기술원장 등 주요 내외귀빈과 사업 참여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공동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교육·연구·실습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30여 년의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와 4개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의 연계·협력을 통해 유기적인 연구가 가능한 '국가 반도체 팹(Virtual fab)'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리 / 임재만

유성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성황
정용래구청장 특별출현



12월 17일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열린 제33회 유성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박재룡 지휘자의 지휘 아래 70여 명의 출연진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1부 비발디 글로리아로 합창을 시작으로 2부 가곡, 마지막으로 뮤지컬 맘마미아가 피날레를 장식했다. 뮤지컬 맘마미아 무대에는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샘 역할로 특별출연해 관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했다.

유성구여성합창단은 1990년에 창단해 현재까지 33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했고 2016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제9회 세계합창올림픽에 참가해 챔피언스 여성합창 부문 금메달, 대통령상 전국합창대회에서 금상(2014), 네 번의 은상(2015, 2017, 2019, 2022)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제1회 빛의 하모니 전국 합창경연대회에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양로원 어르신들과 함께 나눔 실천
진잠마을공동체 구석구석



진잠마을공동체 '구석구석'은 '나무를 지켜요 우유팩 모아 모아 캠페인'을 열어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구석구석은 '사랑의 집(송정길 6번길 156) 노인복지시설 거주 어르신들과 함께 우유 팩·멸균 팩을 등을 수거·세척·건조하는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에게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이들이 함께 모은 재활용품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나 단체에 기부되고 있다.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어르신은 "나이 들어 허리도 굽고, 손가락 관절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활동이지만, 우리 자식들과 후손들 살기 좋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그리고 휴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유성마을버스
1월 1일부터 버스요금 250원 인상



1월 1일부터 유성구 마을버스 요금이 1,100원에서 1,35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대전시내버스 인상액과 같으며,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유성마을버스는 2015년 요금 인상 이후 지금까지 요금을 동결했으나, 운송원가 상승과 이용객 감소 등 운행 적자가 늘어나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정리 / 이훈희

겨울방학 맞아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1월 21일까지 3개소



즐거운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설레고 행복한 게 겨울방학이다. 소중한 겨울방학 가족들과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가족, 친구들과 눈썰매를 타며 추억을 쌓는 건 어떨까.

유성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월 21일까지 휴장일 없이 '2023 유성 어린이 눈썰매장'을 운영한다. 18세 이하는 무료이고, 18세 이상은 1,0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주요 이용 대상은 유아부터 초등학생, 중학생이다.

운영 장소는 작은내수변공원, 연구단지종합운동장, 동화울수변공원 등 3곳이다. 운영시간은 11:00~17:00까지고, 매시간 50분 운영 후 10분 동안 시설점검을 한다. 지난해보다 운영 기간을 3일 늘려 더 많은 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눈썰매장에는 눈·얼음 슬로프, 눈놀이동산, 빙어 잡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 운영, 편의시설 등이 마련됐다.

지난해 호응이 좋았던 눈놀이 동산 규모를 확대하고, 북극 이글루 등 다양한 겨울 체험행사를 도입했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전문 간호인력이 상주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장소 및 주요시설

- **작은내수변공원 (상대동 482-1)**
  얼음썰매 슬로프 1개(유아부터 중학생용), 대형 눈놀이동산 1개, 휴게공간 등
- **연구단지종합운동장(신성동 8)**
  눈썰매 슬로프 1개(유아부터 중학생용), 눈썰매 슬로프 1개(고등학생부터 성인용), 대형 눈놀이동산 1개, 자동회전 눈썰매 1개, 매점·체험시설, 휴게공간
- **동화울수변공원(관평동 771)**
  눈썰매 슬로프 1개(유아부터 중학생용), 눈놀이동산 1개, 휴게공간

이용 요금 무료(18세 이상은 1,000원)



1월 공연안내

1. 4.
클래시모필하모닉 제12회 정기연주회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 042-867-8220

1. 6.
팬텀싱어4 콘서트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 1544-1555

1. 6~7.
장민호 콘서트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정심화홀
☎ 1566-9621

1. 6~7.
오즈의 마법사
대전 평송 청소년문화센터 소극장

1. 11.
강연종 뮤지컬 콘서트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 1661-0461

1. 12.
대전시립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1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 042-270-8382~8

1. 13.
김경현 콘서트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

1. 13.
불타는 트롯맨 TOP7 콘서트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 1544-1555

1. 13~14.
장화신은 고양이
대전 평송 청소년문화센터 소극장
☎ 070-4045-2302

1. 19.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제190회 정기공연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 042-270-8585

1. 20~21.
악뮤 콘서트
대전컨벤션센터
☎ 1544-1555

1. 27~28.
친구들이 뭉쳤다! 이벤져스 라이브!
우송예술회관
☎ 1522-7234

1. 27~28.
로보카 폴리
대전 평송 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 070-4700-9095



유성구 정책
Q&A

구청장이 답하다

유성구 정책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구청장이 직접 답하는 코너를 신설합니다. 이는 일방적인 구정 홍보를 벗어나 주민과 직접 대화하는 쌍방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찾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아래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전화로 말씀하실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질문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참여방법

☎ 042)611-2743

메일 ljm6612@korea.kr





Q. 어은동 궁동 창업 생태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최근에 TV를 보는데 어은동 궁동 일대가 창업 생태계로 새롭게 탄생한다고 합니다. 어은동 청년 창업 공간인 안녕센터 인근에서 살고 있어서 관심이 많이 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지역이 발전해 가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어은동 궁동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구청 공무원 외식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시면 어떨까요?

황윤이(27, 어은동 대학로 거주, 자영업)

A.

황윤이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스타트업파크가 조성되어서 공간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디브릿지, 에스브릿지 이런 창업을 위한 사무실 공간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 한창 지어지는 중입니다. 구청에서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세 차례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민·관이 서로 어울려서 참여하는 생태계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도 함께합니다. 아마 다양하게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져 열린 공간이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이곳에서 융합을 통한 창조와 혁신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궁동 어은동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공무원 외식의 날은 코로나 이전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Q. 독서문화 확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다자녀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니 책을 읽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더군요. 지식을 얻는 것도 도움이지만, 모든 학교 공부에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성구는 대학도서관도 많고, 특히 작은 도서관이 곳곳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책을 읽는 문화를 좀 더 확산하면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신가요? 또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이벤트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연순(50, 원신흥남로, 주부)

A.

김연순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유성구는 타 지자체가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작은 도서관, 9개 대학을 비롯한 국공립 도서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해 유성구는 공공형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을 지원했고, 공감인문학 강좌, 행복한 문화학교,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 다양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성독서대전을 유림공원에서 개최했고, 새해에는 한국지역도서전을 유성에 유치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행사를 통해 구민들이 독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되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안.
유성을 사계절 꽃의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유성은 온천축제 기간에 아름다운 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전민동 천변에 튤립이 대규모로 심어져 보기 좋았고, 많은 사람이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성은 관광 휴양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꽃을 사계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호성(유성구 어린이 엘리트 스키감독)

A.
유호성님 제안 감사합니다. 유성구는 그동안 꽃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봄에 봄꽃전시회가 온천로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가을에는 국화전시회가 있습니다. 국화전시회는 전국 방송에도 많이 소개될 만큼 유성의 대표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하천을 중심으로 꽃을 많이 심어 구민들이 꽃을 보며 생활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유성에는 소하천도 많습니다. 이들 하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이미 용역을 준 상태이고,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하천의 시설도 정비하고 꽃도 심어 4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유성구민 근력 강화의 날을 정하자

건강한 체력은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으로 갖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유성구민 근력 강화의 날'을 정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한 달에 한 번 온천로에 모여 프로그램에 맞춰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참석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구민이 참여해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정영미(55, 서구 둔산로 거주, 유성구 생활무용협회장)

A.
정영미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유성구는 그동안 구민 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다수의 주민이 요청이 오면 종목별로 강사가 파견되어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체조, 요가, 탁구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진잠체육관, 구즉체육관, 유성스포츠센터 등과 같이 지역별로 운동 공간이 있어 실내에서 4계절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영미 님이 제안하신 온천로에서 월 1회 희망자가 모여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발적인 구민 참여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구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크리스마스축제 시간 늘리고 공간 확대하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크리스마스 축재 때 마켓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몇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먼저 공간이 좁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마켓 골목에 사람들이 많아 정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축재 때는 유모차도 지나갈 정도로 넓은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이 너무 짧다고 합니다. 온천로 야간 조명과 트리를 보러 오는데, 마켓이 8시면 종료하니까 너무 아쉽다는 것. 조금 일찍 시작하고 9시나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예산을 늘려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합니다.

이나래(40, 유성구 어은로 거주, 한빛소잉 대표)

A.
이나래님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제가 끝나고 저희도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한 가지 미흡했던 것은 축제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간도 넓히고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구에서 탄소발자국 잘한 아파트는?

반석마을4단지 외 16개 아파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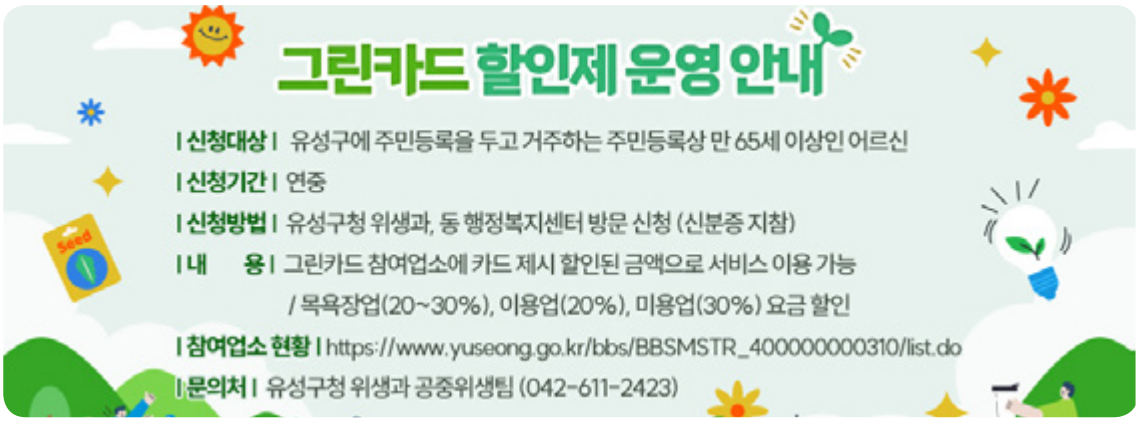
유성구 내 17개 아파트단지가 지난해 12월 7일 '2023년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로 선정되어 인증 현판과 인센티브를 받았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우수아파트를 선정하여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를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정착해 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다.

인증제 평가 항목은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가입률 ▲에너지(전기 및 수도) 사용 절감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실적 ▲탄소중립 홍보 및 캠페인 사업 실적 등이며 기준점수에 도달하면 우수아파트로 인증한다.

올해 인증받은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는 ▲반석마을 4단지 ▲송림마을 4단지 ▲열매마을 10단지 ▲오투그란데미학아파트 ▲도안 휴먼시아4단지 ▲나래아파트 ▲도안 휴먼시아10단지 ▲영무예다음 에코타운 ▲노는 4단지 ▲한빛아파트 ▲유성 목련아파트 ▲죽동 푸르지오아파트 ▲제이파크 아파트 ▲송림마을 6단지 ▲도안마을 1단지 ▲대덕테크노밸리 10단지 ▲대덕테크노밸리 2단지이다.

구는 17개 인증 아파트에 대해서 시상금 100만원과 함께 세대수×5,000원에 상당하는 인센티브(최대 900만원)를 각각 지급하고, 인증 현판과 인증패를 수여했으며, 최상위 인증 점수를 획득한 반석마을 4단지 아파트 유공자 1인에 대해서는 유성구청장의 표창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구민광고' 코너를 신설합니다.

결혼, 출산, 개업, 취임, 농산물 출하 등

'구민광고'는 구민이 자신의 생활 속 소식을 게재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이는 주민 소식(광고)를 통해 구보에 주민 참여를 늘리고, 보다 다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보를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민들께서는 결혼, 출산, 개업, 취임, 농산물 출하, 생일 등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해당 내용을 사진과 함께 게재하겠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 042)611-2743 / 메일 ljm6612@korea.kr

진잠 가는 길 용계동에 세차 맛집 오픈

노미향씨 용계동에 '디케이워시EV' 창업



용계동에 거주하는 노미향씨가 '디케이워시EV'를 창업했다. 노 대표는 오래전부터 운수업을 해온 남편과 고향인 용계동에 전기차 충전소를 갖춘 원스톱 자동 세차장을 기획했다. 노 대표는 오픈 기념 무료 세차를 지난해 12월 2일까지 진행했다. 세차는 브러쉬 없는 고압온수 세척이고 하부세차가 포함된 노 흠집 자동 세차가 장점이다.

• 주소 : 용계동 501-1 / • 문의 ☎ 010-7738-6801

다함께 더좋은 유성

다시 온 도심 속 겨울왕국, 겨울아 나 잡아봐라!

2023 유성구 어린이 눈썰매장

2023. 12. 23. (토) ~ 2024. 1. 21. (일)

11:00 ~ 17:00



장소 작은내수변공원 (상대동 482-1)
연구단지종합운동장 (신성동 8)
동화울수변공원 (관평동 771)

이용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무료)** * 만 18세 이상 (1,000원)

문의 공원과 042-611-2717

- 눈썰매 슬로프
- 눈놀이 동산
- 추억의 놀이

유성구 YUSEONG DISTRICT

청룡의 해
유성은 더높게 비상합니다

다함께 더좋은유성

